

시선

사설

간판 본 간담회
이제 무슨 핑계를 댈 건가

반복된 논의가 새 국면을 맞는 듯했다. 교수의회와 교수의회를 제외한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원들은 모두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 선출규정(선출규정)’ 논의 종결을 위해 법인의 개입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양측은 같은 것을 요구했다. 법인이 개입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말이다. 마침내 지난 5일 법인 이사회 조인원 이사장과 구성원들이 마주 앉았다. 조인원 이사장의 한마디에 한 학기 내내 지루하게 이어지던 관련 논의의 행방이 기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인원 이사장은 ‘법인은 이번 구성원 갈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구성원들이 법인으로 책임의 화살을 돌리던 것을 다시 구성원들에게 되돌린 셈이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간담회 동안, 법인은 구성원 이견 조율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다른 수사로 여러 번 반복했다.

법인의 이러한 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 총장 선출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당위와 큰 목표를 두고 시작한 논의였다. 이제 와 법인이 합일되지 않은 구성원 일부의 의견에 힘을 싣는다면, 당장의 논란이야 종결되었지만 당초 논의를 시작한 이유부터 흐리는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고려해 구성원 간 갈등에 철저히 선을 그은 법인의 태도는 납득할 수 있는 조치다.

이제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대평의 선출 규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사자인 교수의회와 범대위다. 그러나 이어진 논의에 지친 나머지 간담회 이후 양 쪽에서는 구성원끼리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전망하기에 이르렀다.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법인의 방관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의 창끝을 돌렸다. 그러나 법인의 선긋기로 더욱 선명해진 건 결국 구성원 간 합의가 구성원 집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구성원의 타협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교수의회는 범대위가 이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포용의 노력을 보여야한다. 교수의회를 제외한 범대위 구성원들은 교수의회가 범대위를 부정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안해 그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책임 돌리기보다 이제는 자성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 끝내야한다. 공개 토론회라든가 개최해 각자 고민한 내용들을 풀어내자. 교수의회와 범대위가 동수로 모이는 등 조건을 동일시하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이야기할 것을 제안한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는 의견을 도출할 방법에 대해 양 측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를 시작할 때 한 학기를 이어 온 평행선 갈등은 조금씩 그 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

그 누구의 일도 아니다. 구성원의 열망으로 시작했고 구성원의 의지로 끝내야 할 일이다. 총장 선출제는 결국 구성원의 원만한 합의에서 비로소 논의가 시작됨을 명심해야한다.

대학은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꼼짝없이 다음 학기로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와 인문대 학생회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어서문학과 A교수 관련 피해 은폐 및 A교수 비호 시도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A특위, “일부 교수진이 사건 축소 시도한 정황 드러나”/대학신문, 2019.5.26.) 이들은 일부 교수가 A교수의 인권센터 변론서 작성을 돕고 피해자 측에 진술서 내용을 수정,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교수를 찾아가 A교수를 용서할 것을 요구하며 밤새 압박을 가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는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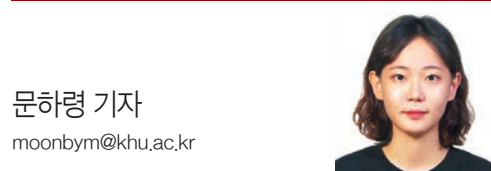
지난 4월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는 이유로 여학우

만평



이 주의 주제 - 장애학생 이동권

당사자 목소리 생략된 장애인 시설



지난 2017년 우리학교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학내에서 장애학생의 학습에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시설이 미비한 공간도 쉽게 발견된다는 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장애인 시설로 마련된 학내 경사로는 정작 장애학생이 이용하기엔 부적절했다. 또 비장애학생에게 ‘인도’로 여겨지는 길은 장애학생에선 ‘인도’가 될 수 없었다. 학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경사로를 마련했다지만 정작 경사가 너무 가팔라 장애학생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우리대학은 장애학생의 생활보다 명목상 이유로 더 집중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2월 부산에서는 장애인 모자(母子)가 차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택시에 부딪혀 어머니가 숨지고 아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현장 바로 옆에 인도가 있었지만 인도 환경이 열악해 모자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처럼 장애학생의 재량에 맡겨진 장애학생의

이동권은 학습권뿐만 아니라 생존권으로 이어진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휠체어의 자체 무게와 속도로 인해 사고 발생시 보행자보다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 부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 또 이로 인한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장애학생만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 누구도, 학생을 대변하는 학생 자치 기구조차 장애학생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우리학교에 약 500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 단과대학 재학생 수를 육박하는 장애 학생은 누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현재 학내에 장애학생을 위한 자치 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장애인은 쉽게 잊혀지고, 어렵게 존중받는다.

물론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은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비장애학생에게 원하지 않게 동정의 대상이 되기 일쑤지만, 그들과 동등하게 학교의 주체로 여겨져야만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사업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생략된 채 진행된다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모욕적인 처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장애인 시설은 특정한 대상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당장 내일 당신의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모두를 위한 움직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게 접근, 강제 성추행을 시도하려 한 건국대 홍보실 조교가 경찰에 입건됐다.(홍보실 A조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입건/건대신문, 2019.5.17.)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건국대 홍보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총학)가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학생회비 납부 저조, 고노하는 학생회/서강학보, 2019.5.25.) 총학 복학기 중순 위 결산안에 따르면 학생회비 납부율은 약 46.7%로, 64,090,435원이 납부됐다. 국제인문학부 김가운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비를 사용해 수익사업을 진행하되, 학생회비 납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앙대 서울캠 총학 성평등위원회(성평위)가 2번째 간담회를 열었다.(중성조 간담회, 뚜렷한 방향 못 잡아/중대신문, 2019.6.4.) 간담회는 ‘학생자치 차원에서 성평등한 중앙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장비단 위원장은 “앞

으로도 소수자 및 젠더권력에 의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자 한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화여대 여성학과와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여성학과 전임교원 부족 문제 심각, 절반 퇴임했지만 총원 없어/이대학보, 2019.6.3.) 이화여대 여성학과는 지난 3년 동안 교수 3명이 퇴임했지만 추가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기에 전임교원 부족 문제가 더욱 지적된다. 여성학과 교수진이 대학원과 학부 연계 전공 강의 외에도 행정, 한국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학센터 등을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연세대에서 ‘글로벌기초교육학부(GBED) 문제 해결을 위한 총학생회-GBED 간담회’가 열렸다.(GBED 등록금 인상분 반환 결정... 남은 숙제는?/연세춘추, 2019.5.27) 연세대는 올해 입학한 GBED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전 공지없이 인상한 사태에 대해 등록금 인상분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BED 학생들은 해결된 등록금 문제 이외에도 학생들 간 교류 부족, 불합리한 학사제도, 외국어 공지 및 안내 미흡 등을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해야

세시봉

이서림 <국제뉴스팀장>



※ 영화 <기생충>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국내 개봉 전부터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이목을 끌었고 개봉 8일 만에 약 5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다. 관람객 대부분은 극장을 나오면서 찹찹하고 복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 그간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인간 군상을 비참하게 그려냈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비참한 스토리가 곧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화는 사회의 비극적인 이면을 직시하고 있다. 비 오는 날에 부잣집은 미제 텐트 안에서 잠이 들지만 가난한 반지하는 물에 잠겨 초토화된다. 누군가에게는 기분을 전환시킬만한 즐거운 일이 다른 이에게는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으로 다가온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 순위는 20위 안에 오르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음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했다는 비보가 줄을 잇는다.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어야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벼랑 끝에 밀릴 동안 세상은 약자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약자는 소리 없이 아우성친다. 세상과 격리된 지하에서 신호를 쏘아 보내지만 외면뿐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부른다. 언뜻 지하는 지상과 철저히 구분돼 다른 세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는 겉게 뚫린 지하실 계단으로 이어져 있으며 약자의 죽음은 모두의 책임이다.

힘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차별이나 멸시와는 엄연히 다르다. 아직도 자본이나 사회적 위치를 권력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신분의 제약은 사라졌지만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계급은 되풀이된다. 사실 자본가와 노동자, 대표자와 부하직원, 정치인과 국민은 공생하는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로 여겨지는 자는 종종 약자를 타자로 간주하며 멸시하곤 한다.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인간이지만 환경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혐오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기사남 념새’로 형상화된다.

영화를 본 뒤 약자를 상징하는 지하실의 남자 얼굴을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열악한 삶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괴범된 얼굴이 강렬하고 두려웠다.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이 있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약자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약자의 얼굴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인식은 변화의 시작이다.

지하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얼굴을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호소하는 아픔에 관심 가진 적이 있는가. 차이가 멸시와 배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가. 타자의 아픔을 두려워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질문을 던질 때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